

“녹음이 저 바위산을 뒤덮고 우리 새들은 널 보면 노래 하는데, 그렇게 너를 둘러싼 모든 것이 명랑한데, 오직 너만 슬퍼하고 있어.”

그린 뒤 폴은 입맞춤을 해서라도 비르지니의 생기를 되찾아주려 했지만, 비르지니는 고개를 돌리더니 몸을 바들 바들 떨면서 자기 엄마를 찾아 달아났다네. 불행한 소녀는 오빠의 애정표시에도 괴로움을 느꼈던 게지. 폴은 평소와는 다른 그토록 이상한 변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불행이란 결코 혼자서는 오지 않는 법이지.

이따금 열대지방에 있는 땅을 황폐하게 하는 그린 여름이 찾아와 이 섬에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네. 12월 말쯤이었나, 염소자리에 들어선 태양이 수직으로 내리쬘듯 불볕을 퍼부어 이곳 프랑스 섬을 3주 내내 뜨겁게 달구던 때였지. 일 년 내 불어오던 남동풍도 더는 바람 한 점 내주지 않았어. 길바닥에는 먼지를 몰아들이는 소용돌이가 길게 일어 그대로 공중을 떠다녔네. 땅이 사방으로 갈라지고, 폴은 불에 타들어갔어. 산허리에서는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왔고, 개울물은 대부분 말라버렸네. 바다 쪽에서도 구름 한 점 밀려오지 않았지. 그나마 낮 동안에만 평지 위로 붉은 증기가 피어올랐는데, 해 질 녘이 되면 그 증기가 화염 속을 넘실거리는 불길처럼 보였네. 밤조차도 불타오르는 대기를 어찌 식히지 못했지. 둥근 달도 온통 빨갱게 물든 채, 안개 자욱한 수평선 위로 턱없이 부풀어 올랐어. 여기